

2009 개정 중학교 교과서의 20세기 음악 감상 영역 비교 분석*

송재녕** · 현경실***

본 연구는 현행 중학교 음악 통합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음악의 실태를 분석하고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20세기 음악과 그 학습 내용을 비교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재의 선택, 수업 설계, 학습 내용 선정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차후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에 필요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중학교 음악교과서 17종에 실린 감상영역 중 20세기 음악을 조사·분석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목신의 오후 전주곡>, <봄의 제전>, <달에 홀린 피에로> 등의 내용을 심층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20세기 음악 감상 학습은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의 일치, 서양음악사와 감상곡의 학습내용 연계성, 그리고 다른 음악 학습 영역 및 타 교과와의 연계 활동 제시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주제어: 음악교과서, 학습 목표, 학습 요소, 20세기 음악 감상

차 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문제

II.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 절차와 분석 기준

III. 중학교 교과서에서의 20세기 음악

1. 20세기 음악의 비율
2. 20세기 음악의 유형별 분석

IV. 주요제제곡의 교과서별 내용비교 분석

1. 목신의 오후 전주곡
2. 봄의 제전
3. 달에 홀린 피에로

V.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2014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논문임.

** 제 1저자 / jaenysong@gmail.com

*** 성신여대 교수(교신 저자) / kyungsil@sungshin.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세기로부터 이어지는 현 시대의 음악을 학습한다는 것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어서 창의력과 사고력, 예술적 표현력을 키우는 데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동시대의 음악사상과 더불어 음악적 발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민경훈, 2012, p. 1)”.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경험하고 역사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며 감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p. 4). 이러한 배경으로 음악 교과에서 ‘20세기 음악¹⁾’은 예전에 비해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으며, 20세기 음악의 교육은 시대적인 요구로 자연스럽게 강조되면서 교과서에서도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음악 교과서의 내용과 질은 음악의 학습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교과서에 나타난 20세기 음악의 구성과 내용 등을 알아보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20세기 음악을 학습할 때 어떻게 교과서를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음악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를 토대로 수업을 구성하는 주체인 교사에게 교과서 분석은 수업 계획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교과서 감상부분의 분석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성미경, 2012, 송유나, 2011 이봉주, 2000, 허정운, 2009) 또 최근 교과서 자체의 분석보다는 학습지도안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음악을 조사한 후 그것을 지도안의 개발에 연결시키는 사례도 있었다(강은혜, 2011, 김하나, 2013). 하지만 2009년 교육과정에 의해 개정되어 2013년부터 쓰이고 있는 교과서를 20세기 음악을 중심으로 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중요 감상곡의 음악사적 의미와 주요 학습내용의 당위성을 논한 연구는 드물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행 중학교 음악 통합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음악의 실태를 분석하고,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20세기 음악과 그 학습 내용을 비교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재를 선택하거나 수업 설계 시 제재곡과 학습 목표, 그리고 학습 내용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차후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에 필요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현대음악(Contemporary Music)’으로도 통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음악(20th-Century Mus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각 교과서의 내용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교과서의 표기 방식에 따랐다.

2. 연구의 문제

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음악 17종 통합교과서에 나오는 20세기 음악의 빈도, 작곡가 및 장르를 조사한다. 둘째, 교과서에서 빈도수가 높은 20세기 악곡 3곡을 선정하여 각 교과서에서 나타난 학습 목표와 제시된 내용 및 활동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 위의 교과서 분석과 여러 문헌을 토대로, 선정된 3곡이 20세기 음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와 그 음악적 특징 등을 고찰해보고 교과서에서 수정·보완될 점을 제안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통합 교과서 17종을 바탕으로 하였다. 교과서 내용 연구의 범위는 20세기 서양 예술 음악의 감상곡에 해당되는 악곡과 20세기의 서양음악사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세기 음악의 시대적 구분은 여러 문헌과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1890년경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음악은 서양의 순수 예술 음악에 한정하여 20세기에 작곡된 국악, 세계의 민속 음악, 크로스 오버 장르를 포함한 대중음악과 실용음악 등 넓은 의미의 20세기 음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20세기에 작곡된 음악이라 하더라도 표현 기법이나 음악 양식 면에서 20세기 음악으로서의 특징을 지니지 않은 음악-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 푸치니의 <투란도트>,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은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교과서에 나타난 20세기 악곡의 내용 비교 분석에서 악곡 선정은 17종의 교과서에서 빈도수가 높은 악곡 3곡-목신의 오후 전주곡(10회), 봄의 제전(9회), 달에 홀린 피에로(8회)-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 비교 분석 연구 대상을 3곡으로 정한 이유는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 외에도 작곡가와 곡명 수준으로 간략하게 제시된 다른 곡들에 비해 교과서의 일정 부분의 지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석 가능한 내용적 가치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연구 절차와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 교과서와 문헌을 토대로 분류된 중학교 음악 통합 교과서의 20세기 음악을 각 유형별로 분석할 때 다음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하였다. 첫째, 17종의 중학교 음악 통합 교과서에 나타난 모든 감상곡을 음악사와 연계되어 제시된 악곡과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각각 시대-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국민악파, 20세기-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시대별 음악의 비율을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0세기 음악을 모두 수집하였다. 둘째, 앞의 절차에 따라 수집된 20세기 감상곡을 다시 빈도수, 작곡가, 장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내용과 목적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17종 교과서에 제시된 20세기 감상곡의 분석 기준

분석 대상	분석 기준	내용과 목적
20세기 감상곡	빈 도 수	악곡 별 교과서에 수록된 횟수 파악
	작 곡 가	작곡가 별 교과서에 수록된 횟수 파악
	장 르	장르별 악곡의 분포도 파악 -장르 구분 : 연주 형태에 따른 분류 기악/성악/기타(전자음악, 불확정적 장르)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음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후, 17종의 교과서에서 빈도수가 높은 3곡-목신의 오후 전주곡, 봄의 제전, 달에 홀린 피에로-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 절차에 따랐다. 첫째, 교과서별 제재곡의 학습 목표를 수집하고,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그리고 활동에 의하여 학습 목표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비교하였다. 20세기 음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재곡별 학습 목표는 모든 교과서에서 대부분 하나로 제시되었고, 금성교과서의 경우에만 두 항목으로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하나로 집약되는 것이어서 학습 목표의 유형을 3가지 중 하나로 구분하였다. 둘째, 학습 목표 유형에 따라 제시된 활동을 영역별로 구분하고 연계된 활동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제 2011-361호, p. 8)에서는 “음악 표현 능력과 음악에 대한 포괄적 이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영역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는 점과 “음악 교과와 타 교과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도한다”고 명시하여 음악과 교수·학습에서 영역과 교과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수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p. 3)에 제시된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

에 근거하였으나, 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음악은 ‘생활화’ 영역을 제외한 ‘표현’과 ‘감상’ 영역에서 나타났으므로 두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셋째, 교과서별 제재곡의 내용 중 작곡가 설명 부분, 시대적 배경의 언급 유무, 첨부된 사진 또는 그림 등의 제시 형태에 따라 비교하였다. 넷째, 위의 세단계로 진행된 교과서별 악곡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논점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안하였다.

위의 분석 과정과 분석 결과에 따른 제안의 중점 사항으로 활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상 영역에서는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의 세부 내용으로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악곡의 특징을 역사·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p. 21). 또한 “음악사에 대한 학습은 악곡, 인물, 사회·문화적 배경 및 음악사의 전체적인 흐름 등을 다룸으로써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p. 9)”라고 교수 학습 방법의 세부 항목에 제시하여 음악사에서 20세기 음악을 지도할 때에도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 지도에 명시된 사항 중 하나는 “음악 감상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며, 악곡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영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다(p. 9)”이다. 20세기 음악에서는 다양한 작곡 기법을 특징으로 하여 전자 매체와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음악이나 그래프나 그림 악보, 각 작곡가만의 특별한 기호 등의 기보 형태가 많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동시대의 다른 예술 분야인 미술과 연계하여 그림을 활용하거나 영상 매체를 통하여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Ⅲ. 중학교 교과서에서의 20세기 음악

1. 20세기 음악의 비율

17종 교과서에서 20세기 음악은 서양음악사와 감상 활동의 두 파트에 제시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p. 6)의 감상 영역 내용 체계에 비추어 서양음악사 파트에서의 20세기 음악은 역사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시대에 따른 음악의 특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된 부류이고,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20세기 음악은 음악을 듣고 음악의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부류로 볼 수 있다.

음악사와 연계된 곡을 모두 조사한 결과 악곡이 나타난 횟수는 모두 330회로 나타났고, 그중 낭만과 음악이 84회로 가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20세기 음악은 63회로 19%에 해당되었다.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곡으로는 전체 186회가 제시되었는데, 그 중 20세기의 음악이 감상곡으로 쓰인 것은 22회로 12%에 불과했다. 교과서별 편차도 심한 편이었다. 와이비엠은 전체 감상곡 중 50%가 20세기 곡이었으나, 17종의 교과서 중 무려 11종의 교과서가 20세기의 곡을 단 한곡도 감상곡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음 <표 2>는 서양음악사와 연계된 악곡, <표 4>는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의 시대별 분포이다. <표 3>과 <표 5>는 각각 서양음악사와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20세기 음악의 교과서별 비율을 나타낸다.

<표 2> 서양음악사와 연계된 악곡의 시대별 분포 (17종)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국민악파	20세기	합계
빈도	2	9	14	54	65	84	39	63	330
비율	1%	3%	4%	16%	20%	25%	12%	19%	100%

<표 3> 교과서별 20세기 음악의 비율 - 서양음악사와 연계된 악곡

	경기도교육청	교학사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	두산동아	(주)미래엔	(주)박영사	비상교육	성안당	세광음악출판사	(주)와이비엠	음악과생활	(주)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태성	현대음악	합계
전체 곡수	19	9	14	18	20	6	28	17	18	34	19	35	13	15	18	15	32	330
20세기	1	1	3	4	2	2	5	3	5	6	5	8	3	5	4	2	4	63
20세기 비율	5%	11%	21%	22%	10%	33%	18%	18%	28%	18%	26%	23%	23%	33%	22%	13%	13%	19%

<표 4>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의 시대별 분포 (17종)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국민악파	20세기	합계
빈도	0	1	1	16	33	101	12	22	186
비율	0%	0.5%	0.5%	9%	18%	54%	6%	12%	100%

<표 5> 교과서별 20세기 음악의 비율 -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

	경기도교육청	교학사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	두산동아	(주)미래엔	(주)박영사	비상교육	성안당	세광음악출판사	(주)와이비엠	음악과생활	(주)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태성	현대음악	합계
전체 곡수	8	3	4	5	17	21	36	13	1	1	12	0	6	3	7	30	19	186
20세기	1	0	0	0	0	3	6	0	0	0	6	0	0	0	0	3	3	22
20세기 비율	13%	0%	0%	0%	0%	14%	17%	0%	0%	0%	50%	0%	0%	0%	0%	10%	16%	12%

2. 20세기 음악의 유형별 분석

2009 개정 중학교 음악 통합교과서에 수록된 20세기 감상곡을 다시 빈도수, 작곡가, 장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가장 많이 실린 곡은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으로 10종에 실려 있다. 그 다음으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순이었다. 다음의 <표 6>은 2회 이상 나타난 감상곡의 빈도수, <표 7>은 2회 이상 나타난 작곡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장르에 따른 분류에서는 기악 22곡, 성악 3곡, 기타(전자음악 5곡, 우연성 음악 4곡)의 구성으로 장르와 관계없이 작곡가와 그 대표작품 중심으로 20세기 음악이 교과서에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악곡별 교과서 수록 빈도수 분석

작곡가	곡 명 (작곡연도)	빈도	작곡가	곡 명 (작곡연도)	빈도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1894)	10	쇤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1947)	3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1913)	9	홀스트	행성 (1917)	3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1912)	8	오르프	카르미나부라나 (1935)	3
라벨	볼레로 (1928)	7	드뷔시	아라베스크 (1894)	2
거슈인	랩소디 인 블루 (1924)	7	드뷔시	바다 (1905)	2
케이지	4분 33초 (1952)	6	슈톡하우젠	습작II (1953)	2
드뷔시	달빛 (1890)	5	슈톡하우젠	소년의 노래 (1956)	2
리게티	아티클레이션 (1958)	4			

<표 7> 작곡가 분포

작곡가	드뷔시	쾨베르크	스트라빈스키	케이지	라벨	거슈인	슈톡하우젠	리게티	오르프	홀스트	버르토크
빈도	20	14	10	8	7	7	5	4	3	3	2
곡수	5	5	2	3	1	1	3	1	1	1	2

IV. 주요 제재곡의 교과서별 내용 비교 분석

17종 교과서에서 감상곡으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쾨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3곡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1. 목신의 오후 전주곡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은 17종 중 10종의 교과서에 각각 수록되었고, 교과서별 학습 목표와 활동, 제시형태에 따라서 비교해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별 학습 목표와 활동 비교

<목신의 오후 전주곡>의 학습 활동과 내용에 따라 학습 목표를 아래의 <표 8>과 같이 A, B, C 의 3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표 9>에 교과서별 학습 목표 유형을 제시하였다.

<표 8> 10종 교과서에 제시된 <목신의 오후 전주곡> 학습 목표 유형

학습 목표의 3가지 유형
A. 인상주의의 이해
B. 근·현대 음악의 특징
C. 작곡가 드뷔시의 음악 세계

<표 9> <목신의 오후 전주곡> 교과서별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 비교

교과서	학습 목표 유형	영역	연계 활동	
			타영역	타과목
경기도교육청	A (인상주의)	감상 (음악사 부분)	X	미술
두산동아	B (근·현대음악)		X	X
㈜박영사	A (인상주의)		X	미술, 문학
비상교육	B (근·현대음악)		X	X
㈜와이비엔	A (인상주의)		X	미술
음악과 생활	C (드뷔시)		X	X
성안당	A (인상주의)		X	문학
㈜지학사	B (근·현대음악)		X	X
천재교육	C (드뷔시)		X	X
현대음악	B (근·현대음악)		X	X

<목신의 오후 전주곡>은 10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근·현대음악사의 감상 영역 첫 곡으로 제시되어 음악사에서 곡이 차지하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2012, pp. 6~9)에서는 감상 영역에 ‘음악 요소와 개념’와 ‘음악사’의 이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감상과 이해의 연계활동임을 알 수 있다. <목신의 오후 전주곡> 활동에서는 음악사의 이해 측면에 충실하다보니, 감상 영역 외의 가창, 기악, 창작과 연계된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과목과의 연계 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활동 내용은 학습 목표의 유형을 나타낸 앞의 <표 9>에 함께 제시하였다.

학습 목표가 인상주의에 초점을 둔 A유형인 경우에 다른 과목과의 연계가 이루어졌는데, 『경기도교육청』 교과서에서는 인상주의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을 학습 목표에서 강조하여 감상 활동 후 그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미술 과목과의 연계 활동을 제시하였다. 『㈜박영사』와 『성안당』 교과서에서는 이 곡이 말라르메의 상징시에서 영향을 받은 점을 들어 그 시에 나타나는 목신의 이야기와 더불어 음악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더 나아가 『㈜박영사』 교과서에서는 모네의 회화와 관련지어 드뷔시가 인상주의 미술을 음악에 적용하였다고 서술하면서 각각 문학, 미술과 연계하여 악곡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음 [그림 1]은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 말라르메의 시 ‘목신의 오후’에 의해 영감을 받아 작곡된 곡임을 설명하면서 감상 활동으로 플루트 선율과 시의 줄거리 간의 연관성을 의도하고 있다.

이 곡은 인상주의를 분명하게 한 작품으로 드뷔시의 걸작이다. 처음에는 말라르메(Mallarmé, stephane 1842~1898)의 시 '목신의 오후'에 의한 3부작(전주곡, 간주곡, 종곡)의 관현악을 계획했으나 전주곡만 완성하였다. 자유로운 세도막 형식으로 세 개의 주제 선율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있다.

제1주제 무반주의 플루트가 목신이 부는 플피리를 모방한 환상적인 제1주제의 선율을 연주한다.



4 감상하기

첫 시작 부분의 플루트 선율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감상해 보자.

아 책 '목신의 오후' 줄거리

피리를 부는 목신(牧神) ▶



머리와 몸은 사람이고 허리 아래는 짐승처럼 생긴 목신은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오후에 잠에서 깨어난다. 그때 전날 물의 요정들을 만났던 일이 떠오르는데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었던지 환상이었던지 잘 분간이 되지 않는다. 얼마 후 회상은 사라지고 다시 고요한 오후, 목신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든다.

[그림 1] <목신의 오후 전주곡> 연계 활동 - 문학 (『성안당』 p. 234)

2) 교과서별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 비교

<목신의 오후 전주곡> 감상 활동에 나타난 교과서별 구성과 그 형태를 살펴보면, 이 곡이 수록된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음악의 시작 부분을 악보로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두산동아』 교과서에서는 주제 A와 주제 B를 따로 제시하여 주제 선율의 변화에 따른 음악의 형식적 특징에 접근하고, 주제에 따른 분위기의 전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과서에서는 각 주제를 악기의 음색에 유념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악보를 제시하였다.

음악 양식은 이 곡이 수록된 10종의 모든 교과서에서 '인상주의'로 표기하고 있으며, 인상주의의 특징을 음악 자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그 의미를 교과서의 지면에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림과 사진의 구성 면에서는 작곡가 드뷔시의 사진과 모네의 <해돋이> 회화가 많았고, 드뷔시의 음악을 상징주의 문학과 연관 지었던 『(주)박영사』 교과서에서는 목신의 이야기 삽화를 제시하였다. 『현대음악』 교과서에서는 시대적인 맥락과 함께 음악을 감상하는 것을 학습 목표와 교과서의 구성적 측면에서 의도하였으므로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 발표되었던 당시의 포스터를 실어 그 시대의 현장감을 더하였다.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밖의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은 다음 <표 10>에 정리하였다.

<표 10> <목신의 오후 전주곡> 교과서별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 비교

교과서	시대적 배경	악보	그림·사진
경기도교육청	전수학습 - 현대 음악 개관	시작 부분	X
두산동아	X	주제 A 주제 B	-드뷔시 초상화
(주)박영사	문화적 배경	시작 부분	-모네 <해돋이> -목신 이야기 삽화
비상교육	19세기~20세기의 음악적 경향	시작 부분	-모네 <해돋이>
(주)와이비엠	음악과 미술의 만남	시작 부분	-모네 <해돋이 인상>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음악과 생활	X	시작 부분	-드뷔시 카툰
성안당	근·현대음악 개관 인상주의의 등장	시작 부분	-드뷔시 사진 -회화 <피리 부는 목신>
(주)지학사	X	시작 부분	-드뷔시 초상화
천재교육	근대·현대 음악 개관	시작 부분	-드뷔시 사진
현대음악	근대·현대 음악의 시대적 배경과 특징	시작 부분	-공연 포스터(1912) <목신의 오후 전주곡>

3) 분석 결과에 따른 제언

<목신의 오후 전주곡>의 교과서별 비교 분석을 통해 제언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 수록된 10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제재곡을 ‘인상주의’ 작품이라고 명명하였고, 이 중 4종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서 인상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음악 자체의 특징보다 ‘인상주의’라는 양식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인상주의’라는 명칭이 미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Michels, 1985, p. 483) 일반적으로 음악에서의 ‘인상주의’를 설명할 때 인상주의 회화와 함께 언급되고는 한다. 그러나 드뷔시는 ‘인상주의’라는 용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인상주의 회화를 모방하여 작곡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석원, 1997, p. 48). 그러므로 드뷔시가 인상주의 회화에서 영향을 받아 인상주의 음악을 만들었다고 단정 짓는 내용의 교과서는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인상주의 미술과 연계하여 가르칠 때에는, 인상주의 회화와 드뷔시의 음악을 인상주의의 틀 안에서 하나로 일치시키는 접근보다 미술과 음악의 경향이 동시대에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무게를 두고 각 예술 장르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 활동이 바람직하다.

둘째,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 근·현대음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와 인상주의가 나타나게 된 시대적 배경 등이 음악적 특징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10종의 교과서 모두 서양음악사 단원의 근·현대음악 파트에서 이 곡을 첫 곡으로 다루고 있지만 위의 사항들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이 음악적 특징 안에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라우트(D. Grout, 1991)는 인상주의가 일종의 표제음악이지만 대부분의 낭만주의적인 표제음악과는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는 감정을 표출하거나 이야기를 말하려 하지 않고, 암시적인 표제와 자연의 음, 무용의 리듬, 선율의 특징적인 단편 등의 도움을 빌려서 하나의 분위기를 환기시킨다는 점, 둘째는 축소된 표현에 의존한다는 점, 셋째는 독일의 낭만과 전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음악 어법으로써 화성, 색채, 리듬 그리고 형식 원리를 사용한다는 점이다(Grout, 1991, pp. 957~959). 또한 이석원은 <목신의 오후 전주곡>의 시작 부분인 플루트 독주 주제가 최고음인 C#과 최저음인 G사이를 반음계적으로 자유롭게 오르내림으로써 조성의 개념이 모호한 점, 불규칙한 리듬, 유동적인 빠르기, 불분명한 형식 등의 음악적 특징이 전통적인 서양음악의 기준을 무너뜨렸다고 언급하였다(이석원, 1997, p. 56).

이러한 음악적 특징들은 음악에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준거가 되기 때문에 음악사를 이해하는 토대가 되어야 하고, 당시 유럽 사회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목신의 오후 전주곡>의 음악적 특징을 보여주는 요소를 적절히 추출하여 그 주제를 통한 창의적 활동이 교과서에 제시되어야 하고, 단순히 음악을 듣고 느끼는 것에서 벗어나 그러한 음악의 특징적 표현이 시대적 맥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 과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목신의 오후 전주곡>은 말라르메 시에 의하여 이 작곡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교과서에 부분적이라도 제시하여 문학과 연계된 감상 활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2. 봄의 제전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교과서 17종 중 9종의 교과서에 각각 수록되었다. <봄의 제전>의 교과서 별 학습 목표와 활동, 제시 형태에 따라서 비교해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별 학습 목표와 활동 비교

교과서별 <봄의 제전> 감상 활동에 따른 학습 목표를 다음 <표 11>과 같이 A, B, C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표 12>에 교과서별 학습 목표 유형과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표 11> 9종 교과서에 제시된 <봄의 제전> 학습 목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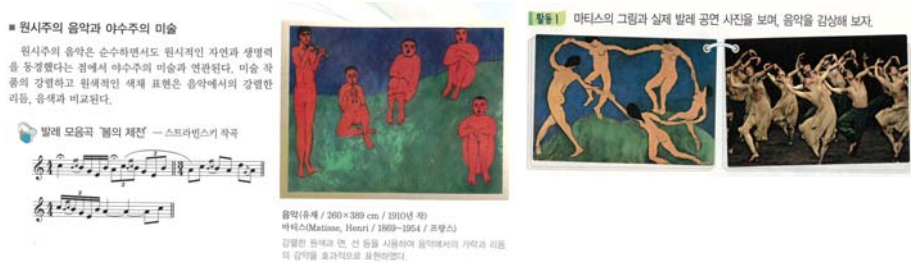
학습 목표의 3가지 유형
A. 원시주의의 이해
B. 근·현대 음악의 특징
C.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음악 세계

<봄의 제전>은 9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음악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감상 영역으로 제시되었고, 연계 활동으로는 회화와 더불어 감상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표 12> <봄의 제전>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 비교

교과서	학습 목표 유형	영역	연계 활동	
			타영역	타과목
(㉠)금성출판사	B (근·현대음악)	감상 (음악사)	표현(기악)	X
(㉡)교학사	B (근·현대음악)		X	X
성안당	A (원시주의)		X	X
세광음악출판사	B (근·현대음악)		X	X
(㉢)와이비엠	A (원시주의)		X	미술
(㉣)지학사	A (원시주의)		X	미술, 무용
천재교과서	B (근·현대음악)		X	X
천재교육	C (스트라빈스키)		X	X
현대음악	B (근·현대음악)		X	X

『(㉢)와이비엠』 교과서에서는 <봄의 제전>이 원시주의 양식임을 소개하면서 이 곡이 작곡될 당시의 미술 사조로써 원시주의와 맥락을 같이 했던 야수주의 회화와 비교하며 감상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지학사』 교과서에서는 이 곡이 발레 음악인 점을 감안하여 발레 공연 사진을 교과서에 구성하고 음악과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다음 [그림 2]는 교과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직접 제시된 부분이다.



[그림 2] <봄의 제전> 미술, 공연 예술(무용)과의 연계 활동
(좌: 「쥬와이비엠」 p. 231, 우: 「쥬지학사」 p. 121)

『쥬금성교과서』에서는 음악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감상 영역뿐만 아니라, <봄의 제전>에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인 악센트에 의한 불규칙 리듬과 불협화음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악 활동을 구성하여, 표현 영역과의 연계 활동이 제시되었다. 다음 [그림 3]에서와 같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느끼고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음악 요소로써 불규칙 악센트, 변박자, 타악기의 음색을 강조한 편성을 설명하면서 직접 체험하며 느끼는 활동으로 이끌고 있다.

○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중 '젊은이의 춤'

러시아 원시 민족의 종교 의식을 소재로 한 같은 제목의 발레 작품을 위한 무용 음악이다. 불규칙적인 악센트, 변박자, 타악기를 강조한 편성 등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이 든다.

원시주의 음악

후기 낭만파의 세련된 음악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원시주의 음악이다. 원시 민족의 격렬한 리듬과 음색으로 연출한다.

감상 2. 앞부분에 등장하는 32개 화음의 악센트에 유의하며 감상해 보자.



표현 3. 두 모듬으로 나누어 불규칙한 악센트의 32박 리듬을 건반 악기로 연주하여 보자.

모듬1



모듬2



마디	1	2	3	4
리듬과 악센트				
마디	5	6	7	8
리듬과 악센트				



스트라빈스키(1882~1971)
Igor Stravinsky
· 러시아에서 태어나 프랑스와

[그림 3] <봄의 제전>의 활동 내용 (『쥬금성출판사』 p.155)

이 밖에도 학습 목표로서 20세기 음악의 다양한 사조를 알아보고자 그 중 하나인 신고전주의를 서두에 제시하고 원시주의 작품인 ‘봄의 제전’을 소개하는 오류를 범하거나, 학습 목표에서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와 그의 작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학습 내용으로 ‘봄의 제전’ 악곡만을 감상 활동으로써 제시한 사례가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2) 교과서별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 비교

<봄의 제전>은 2부 총 14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 형태로, 교과서에 제시된 곡은 교과서별로 <봄의 제전>의 음악적 특징과 원시주의 색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곡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관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대적 배경의 언급과 관련하여 『성안당』 교과서에서는 학습 목표를 원시주의의 이해에 무게를 두고, 원시주의가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배경에 대해 “후기 낭만파의 지나치게 세련되고 부드러운 음악에 대한 반동(p. 236)”이라고 함축적으로 서술하여 양식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음악 양식은 모두 7종의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으나, 『천재교과서』와 『현대음악』 교과서에서는 ‘원시주의’를 ‘신고전주의’로 잘못 칭하고 <봄의 제전>에 대하여 ‘신고전주의’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밖의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은 다음 <표 13>에 정리하였다.

<표 13> <봄의 제전> 교과서별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 비교

교과서	시대적 배경	양식 표기	악보	그림·사진
(주)교학사	X	X	<선택된 처녀에의 찬미> 시작 부분	-마티스 <춤 속의 리듬과 색>
(주)금성출판사	근·현대음악의 등장 배경	원시주의	X (리듬꼴과 화성 표기로 대체)	-칸딘스키 <컴퍼지션> -피카소 <거울을 보는 소녀>
성안당	후기 낭만의 반동과 원시주의 등장	원시주의	<희생의 춤> 2대의 피아노 편곡 악보	X
세광음악출판사	X	원시주의	시작 부분	-작곡가 사진
(주)와이비엠	음악과 미술의 만남	원시주의	시작 부분	-마티스<음악>
(주)지학사	X	원시주의	1부-1곡<서곡>, 2곡<젊은 남녀들의 춤> 2부-6곡<신성한 춤>	-마티스 회화 <춤 속의 리듬과 색> -공연 사진
천재교과서	20세기 음악의 변화	신고전주의	X	-작곡가 사진
천재교육	근·현대음악의 등장 배경	X	1부-2곡 <젊은 남녀들의 춤>	-작곡가 사진
현대음악	다양한 사조의 등장	신고전주의	1부-2곡 <젊은 남녀의 춤>	-공연 사진

3) 분석 결과에 따른 제안

교과서에서 대부분 원시주의의 강렬한 특징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의 분석 결과 제안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시주의’를 뜻하는 음악 양식의 특징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야 한다. 20세기 음악의 대표적 특징을 ‘다양성’으로 들어 교과서에서 여러 가지 음악 양식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때 각 양식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음악사의 흐름을 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새로운 양식을 소개하기 전에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음악적 특징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교과서에 간략하게나마 서술되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 양식 간의 연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과 구성이 필요하다.

디아길레프가 이끄는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으로 1913년 5월 <봄의 제전>이 초연될 당시, 이 공연은 청중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백병동(1990)은 이에 대하여 새로운 음악이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지니게 될 때는 청중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라는 우상을 파괴하는 자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상흥분에 쌓이게 된 사회적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그때에 이미 전 유럽에 닥치고 있었던 전쟁에의 예감, 이러한 기운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안과 초조였다(백병동, 1990, p. 41). 유럽 사회의 긴장과 분쟁은 곧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봄의 제전>이 작곡됐을 당시 원시 문화에 대한 관심은 스트라빈스키뿐이 아니었다(이석원, 1997, p. 81). 윌리엄스, 버르토크, 야나체크 등의 음악가와 마티스, 피카소와 같은 예술가들은 민속적 전통에 관심을 가져 세계 각국의 민요와 민속 무곡, 전통 예술 등의 소재를 작품에 끌어들었다. 입체파 회화의 장을 연 것으로 꼽히는 피카소의 <아비뇰의 젊은 여인들>은 아프리카의 조각에 영향을 받아 만든 작품이고, <봄의 제전>이 발표된 1913년, 프로이트는 <토템과 터부>라는 책을 출판하여 원시인과 노이로제 환자간의 유사성을 발표하였다(이석원, 1997, p. 81).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은 <봄의 제전>과 같은 음악에서 ‘무엇’이 새로운가와 더불어 ‘왜’ 새롭고,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가의 근거가 된다. 더 나아가 음악적 특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표현됐는지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교과서에서 역사적 배경을 서술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축소되면 의미 전달에 혼란을 줄 수 있고, 그 내용이 과도하게 확장될 경우에는 지루해지거나 감상 활동에서 중요한

음악적 특징과 활동을 제시하는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교과서의 지면 구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봄의 제전>의 감상 활동에서 학습 목표의 유형에 따라 교과서의 활동과 이해 영역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학습 목표가 ‘원시주의’ 양식을 이해하는 방향에 맞추어져 있다면 양식을 규정하게 하는 음악적 요소를 교과서에 구성하여야 하고, 다른 예술 장르와 함께 감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르토크의 <알레그로 바르바로> 등과 같은 원시주의가 나타난 다른 음악도 함께 소개해 볼 수 있다.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에는 스트라빈스키의 다양한 음악 양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도 그에 맞춰져야 한다. 그의 작품은 보통 1913년까지의 초기 민족주의 음악과 3개의 발레 음악, 그 이후 1951년까지의 신고전주의 작품, 그리고 최후 20년 동안의 음렬음악의 세 시대로 나뉘어 거론된다. 어떤 작곡가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양식적 변화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스트라빈스키와 같이 극에서 극을 달리는 변신을 거듭하는 작곡가는 찾아보기 힘들다(이석원, 1997, p. 155). 그러므로 학습 목표가 작곡가에 초점을 둔 경우라면, 작곡가의 생애와 시대적인 배경의 연관성과 그에 따른 음악 양식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학습할 수 있다.

3. 달에 홀린 피에로

쾨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는 17종 중 8종의 교과서에 각각 수록되었다. 교과서별 학습 목표와 활동, 제시형태에 따라서 비교해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별 학습 목표와 활동 비교

<달에 홀린 피에로>의 감상 활동에 따른 학습 목표를 다음 <표 14>와 같이 A, B, C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교과서별 학습 목표 유형을 <표 15>에 감상 활동과 함께 제시하였다.

<표 14> 8종 교과서에 제시된 <달에 홀린 피에로> 학습 목표 유형

학습 목표의 3가지 유형
A. 표현주의의 이해
B. 근·현대 음악의 특징
C. 작곡가 쾨베르크의 음악 세계

<표 15> <달에 홀린 피에로>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 비교

교과서	학습 목표 유형	영역	연계 활동	
			타영역	타과목
두산동아	B (근·현대음악)	감상 (음악사)	X	X
비상교육	B (근·현대음악)		X	미술
(주)와이비엠	A (표현주의)		X	미술
음악과 생활	C (쇤베르크)		X	X
천재교과서	B (근·현대음악)		X	X
천재교육	C (쇤베르크)	감상	X	X
성안당	B (근·현대음악)		X	X
태성	B (근·현대음악)		X	X

『태성』 교과서에서의 활동에서는 <달에 홀린 피에로>의 음악적 특징을 음악 요소의 개념적 이해를 통하여 접근하여 다음 [그림 4]와 같이 제시하였다.

활동 1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 중 ‘병든 달’을 들어 보고, 색다르게 느껴지는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자.

- 기악: 장조, 단조 등의 음계가 없음.
- 목소리: 성악적 발성에 의한 고운 소리를 피함.
- 화성: 여러 성부로 되어 있지만 전통적 화성이 쓰이지 않음.



④ 쇤베르크(1874~1951)



[그림 4] <달에 홀린 피에로> 음악 요소의 개념적 접근 활동(1) (『태성』 p. 330)

『성안당』 교과서에서는 <달에 홀린 피에로>의 주요 음악적 특징 요소로써 ‘화성’과 ‘음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감상할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주)와이비엠』 교과서에서는 곡의 음악적 특징보다는 표현주의에 초점을 둔 음악과 미술의 연계 활동으로 칸딘스키가 쇤베르크의 음악회를 다녀온 후 완성한 회화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해석을 곁들여 음악과 연관시키고자 했다.

2) 교과서별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 비교

<달에 홀린 피에로>는 전 3부 각 7곡으로 이루어진 연가곡의 형태로 구성하는 곡마다 시(가사)의 내용과 악기의 편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안당』 교과서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소재목을 지정하여 감상활동을 제시한 대부분의 다른 교과서에서는 특별히 그 곡이 감상 활동곡이어야 하는 이유나 특징적인 부분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교과서에 나타난 <달에 홀린 피에로> 악보의 제시 형태로는 주요 선율만을 보여주는 악보와 <달에 홀린 피에로>의 가사와 그 가사의 특징적 표현기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함께 제시한 악보의 두 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었다.

<달에 홀린 피에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언급은 음악사 개관이 따로 구성된 경우에만 간략히 서술되었다. 그것은 역사와 사회적 측면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해당 시대의 음악적 경향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양식 표기에 있어서는 ‘무조음악’과 ‘표현주의’로 언급되었는데, 두 양식을 함께 표기한 교과서는 없었다.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밖의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은 다음 <표 16>에 나타났다.

<표 16> <달에 홀린 피에로> 교과서별 제시 형태에 따른 내용 비교

교과서	시대적 배경	양식 표기	악보	그림·사진
두산동아	근대·현대음악의 등장	무조음악	제8곡 <밤> 시작 부분	-작곡가 초상화 -칸딘스키<구성 8>
비상교육	근·현대음악의 등장	표현주의	X	-칸딘스키<인상 3> -작곡가 사진
(주)와이비엠	근·현대음악 개관	무조음악	제1곡 <달에 취하여> 시작 부분	-작곡가 사진
음악과 생활	현대의 음악과 미술의 만남	표현주의	제1곡 <달에 취하여> 18-22마디	-칸딘스키 <인상 3-음악회>
천재교과서	12음 기법과 시대 상황	무조음악	제6곡 <마돈나> 시작 부분 (플루트)	-작곡가 카툰
천재교육	20세기음악에서의 변화	표현주의	X	-작곡가 사진
성안당	근대·현대음악의 특징	표현주의	제6곡 <마돈나> 시작 부분 (플루트)	-작곡가 사진
태성	X	X	제 7곡 <병든 달> 시작(플루트, 노래)	-작곡가 초상화

3) 분석 결과에 따른 제안

<달에 홀린 피에로>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제안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에 홀린 피에로>는 표현주의 사조나 표현주의 미술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곡의 음악적 특징과 더불어 학습되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석원(1997)은 쇤베르크의 20세기 초기 무조음악을 표현주의와 직접 연관 짓는 몇 가지 근거를 들고 있다. 그것은 쇤베르크가 표현주의 회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표현주의 회화 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활동했다는 사실과 칸딘스키와 많은 교류를 했다는 점, 그리고 표현주의를 단순한 예술적 활동의 범주를 넘어선 당시 독일의 정신적·사회적 전반의 활동으로 보는 점이다(이석원, 1997, pp. 102~103).

그러나 음악적 특징에 대한 접근 없이 언어로써만 기술될 때에는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달에 홀린 피에로>의 학습 활동을 ‘표현주의’로만 한정하는 경우 20세기 음악의 여러 양식을 설명하기에 효율적이지만 음악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질 수 있다. 많은 교과서에서 이 곡을 ‘내면의 표현’이라는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음악 감상을 통하여 그 부분을 주관적인 느낌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는 혼란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내면의 표현’이라는 기술은 낭만주의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표현주의는 그 출발점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낭만주의에서 자연히 발전한 것이다(Grout, 1991, p. 1034). 다만 <달에 홀린 피에로>를 예로 들어 음악적 표현에 있어서 낭만주의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표현주의는 인간 내면의 ‘소외된’ 주관성으로 그대로 예술로 드러내고자 한 예술 사조이며, <달에 홀린 피에로>는 가사의 내용과 조성의 중심이 없이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는 무조적 짜임새, 섬뜩한 성악선율, 색채적 악기배합 등을 통해 그 본질을 드러내는 작품(홍정수·김미옥·오희숙, 2010, p. 410)”이라는 점이다.

이 곡이 20세기의 서양음악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재곡으로 선정된 것이라면, 중학생에게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기에 학습해야 할 음악적 요소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선별하여 이해의 영역만이 아닌 활동 영역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 교과서의 한정된 지면 안에 학습 내용과 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그것은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20세기 음악의 다양성이나 실험정신이 흥미롭게 다가갈 학습에 있어서 동기 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음악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어떻게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 제시가 필요하다. <달에 홀린 피에로>의 학습을 감상에서부터 시작

한다면 그 곡에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표현주의 음악이라고 특징지어지는 음악적 양식이 어떤 이유에서 <달에 홀린 피에로>와 같은 형태로 표출되어졌는지 시대적 상황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달에 홀린 피에로>가 작곡될 당시는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그 곡에는 “고립되고 이해할 수 없는 힘에게 붙들려 무력하게 되고, 내적 갈등과 긴장, 불안, 공포, 그리고 본질적이고 비합리적인 잠재의식의 모든 충동의 희생이 되고, 또 기존 질서와 일반적으로 인정된 여러 형식에 대하여 신경질적으로 반항하고 있는 인간(Grout, 1991, p. 1034)”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와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표현주의 음악에 나타난 작곡가 내면의 감정 이입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음악과 연결된다면 음악에 대한 관심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또 현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과 감상 활동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과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교과서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9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통합교과서 17종을 바탕으로 20세기 음악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어진 <목신의 오후 전주곡>, <봄의 제전>, <달에 홀린 피에로>의 내용과 제시 형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론 및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의 음악이 감상곡으로 쓰인 것은 전체 감상곡의 12%에 불과했다. 교과서별 편차도 심한 편이었다. 20세기의 감상곡이 가장 많은 출판사는 50%에 달했고, 음악사에서 20세기의 음악을 언급하고 다루었을 뿐, 17종의 교과서 중 무려 11종의 교과서가 단 한곡도 감상곡으로 다루지 않고 있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양한 악곡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교과서에서 20세기 음악의 감상은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거나 학습 목표와 다르게 학습 활동이 구성된 경우가 있었다. 게다가 교과서 집필자의 관점에서 추출된 학습 요소와 내용의 일부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

셋째, 서양음악사의 이해 부분에서 감상 활동으로 제시된 악곡의 경우에 음악사와 시대적 배경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감상 악곡만을 제시하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시대적 맥락을 보여주는 부분이 부족하였다.

넷째, 감상을 제외한 영역이나 다른 과목과의 연계가 적었다. 20세기의 곡들은 음악사를 이해하는데 사용되었을 뿐 감상 외에 가창, 기악, 창작 등의 다른 영역간의 연계는 별로 없었다.

따라서 교과서에 나타난 20세기 음악에 대한 비교 분석과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수업설계나 교과서 집필 시 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20세기 음악은 음악적 특징과 더불어 역사와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학습되어야 하고 다른 예술 장르와의 연계 활동이 중요하므로 이와 같은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교과서에 제시되는 각 제재곡 별 학습 목표는 관점의 기준과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교과서의 각 제재곡 별 학습 내용과 활동은 학습 목표에 따라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0세기 음악에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미적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 다양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존중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관점에 대한 파악과 수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음악 교사는 20세기 음악을 지도하기에 앞서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교과서를 선택하는 기준과 학습 내용을 선별하는 관점에 대한 시각을 넓혀야 하고, 학습 내용이 선별된 후에는 그 내용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에도 이러한 과정이 명확히 적용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교과서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창의적인 지도법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 강은혜 (2011). 1945년 이후 현대음악에 관한 지도방안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 김문자, 노영해, 박미경, 이석원, 허영한 (2006).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서울: 심설당.
- 김하나 (2013).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20세기음악 감상수업 지도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민경훈 외 (2013). **개정판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 민경훈 (2012). 중등학교에서의 현대음악 감상지도 방법. 서울: **예술교육연구** 제 10 권, 제 1호.
- 백병동 (1990). **(작품을 통한) 현대음악의 흐름**. 서울: 수문당.
- 성미경 (2012). 중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의 서양음악사 및 감상곡 내용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유나 (2011).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봉주 (2000).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현대음악의 현황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석원 (1997). **현대음악 - 아방가르드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세원 (2010). **개정판 서양음악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2010). **개정판 두길 서양음악사(하)**. 서울: 나남.
- 허정운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 통합교과서 분석 및 제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Grout, D. J. (1991). **개정3판 서양음악사**.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Michels, U. (2005). **음악은이**. 홍정수, 조선우 역. 서울: 음악춘추사.

ABSTRACT

Analytical Study On The Contents Of 20th-century Music In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Jae-Nyeong Song · Kyungsil 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tents of 20th-century music in the 17 kind of middle school textbooks which were revised in 2009 curriculum. The musical pieces of 20th-century music in the textbook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composer and genre and compared education contents of some musical pieces such as 'Prelude a l'après-midi d'un faune', 'Le sacre du printemps', 'Pierrot lunaire' in the textbook for its learning goal.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e elements to be learned and considered what needs to be in the text book and how to compose the contents for each musical piece by a number of references.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20th-century music should be learned on the basis of history, society, and cultural background as well as its musical figure. It is also important to connect musical activity with other art genre such as fine art, dance, performance, etc. Second, since the learning goal of each musical piece in the textbook is different for the author's point of view, the frame of reference should be cleared. Third, the education contents and activities of each musical piece in the text book should be composed logically and effectively depending on its learning goal. Fourth, the activities in the textbook should be consisted on the basis of student's level and demands rather than teacher's preference so that students can study 20th-century music during the class enthusiastically under their own initiative.

Key words: analysis of music textbook, teaching of 20th-century classical music

투고일: 2015년 2월 28일, 심사(수정): 4월 30일(5월 7일), 게재확정일: 5월 11일